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두 얼굴의 대형마트

❶ PB상품 허와 실

납품 中企 자양분 빨아먹기

대형마트의 자체브랜드(PB·private brand) 상품이 중소 제조업체들의 자생력을 약화시켜 결국에서는 산업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익과 판로 확보를 위해 대형마트의 PB상품을 만들고 있지만, 결국에는 대형마트의 하청업체로 전락해 고유 브랜드를 키우지 못하고 고사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가공식품을 납품했던 광주지역 한 업체 관계자는 "제품 홍보와 판로확보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했지만 기획행사, 매출기준 등 대형마트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맞추다 보니 적자만 쌓여가 결국에는 철수했다"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들은 대형마트가 PB상품으로 납품을 요구하는 것을 비롯해 부당한 요구가 많아도 거래중단 등 보복이 두려워 이를 감수하는 제조업체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 상품 구매를 담당했던 한 직원도 "PB상품을 계속 늘리는 것은 유통업계의 대세"라며 "갈수록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통주도권을 쥔 대형마트가 거래중단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제조업자가 대응할 방안은 사실상 전무해 종속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대형마트들이 총 매출에서 PB상품의 매출 비중을 최대 40%까지 늘려잡고 품목을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상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밀크아몬드 초코볼'과 '짱구 쿠키치즈볼'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당했다.

또 지난 6월과 5월에는 이마트의 PB상품인 '옥수수맛 전분'(이산화황 기준치 초과)과 '자숙 냉동 가리비살'(대장균 기준치 초과), 튀김가루(이물질 검출) 등이 문제가 되는 등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PB제품의 이물질 건수 2008년 13건에서 2009년 25건, 올 상반기는 35건에 달했으며,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형마트 PB제품의 이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이마트 32건,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각각 19건으로 집계되는 등 PB제품과 관련된 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해당 제품의 안전(위생)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으며 위생점검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식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업체들이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유통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되고 나아가 내수시장에서는 중소 제조업체의 고유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게 될 지도 모른다"며 "중소기업이 몰락하면 나라의 경제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대량주문 유혹 저가 강요 일쑤
하청업체 취급, 요구도 가지가지
거래중단 보복 당할까 전전긍긍
결국 고유 브랜드 못 살리고 고사

대형마트 PB상품인 '빅샌드'가 일반 상품인 '크라운 산도'보다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배치돼 있다. 대형마트들이 선보이고 있는 PB상품들은 '원조상품'들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품 성분에는 차이가 없으며 마케팅 비용 등을 절감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유통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삼성테스코 치평동·풍암동·광산구 우산동 기업형 슈퍼 중단하라"

광주 SSM 반발 총궐기 양상

광주 지역에서 중소상인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추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소상인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결성된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SSM 입점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테스코는 서구 치평동, 풍암동, 광산구 우산동 SSM 입점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여건이 열악한 광주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30% 이상으로 전국 상위권을 넘는 반면 대형마트는 전국대도시에 비해 더 많이 진출해 있는 현실에서 기업형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장악은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광주경제를 무너드리는 도발이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삼성테스코 등 대형유통회사들은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기습점포 개설을 중단하고 SSM입점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광주시는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통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상인들은 "삼성테스코는 지난 6일부터 기습적으로 두 SSM 입점 예정지(치평동, 풍암동) 내부공사를 시작해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지난 3월 31일 사업조정신청 이후 사업조정협의를 벌이고 있음에도 매장공사를 강행하는 처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무분별한 SSM 진출을 막기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삼성테스코가 SSM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치평동 등 3곳에 입점하려 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와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무너뜨리는 SSM 입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에는 올해 들어 북구 매곡동에 대형마트, 서구 치평동과 풍암동에 SSM 개점이 각각 추진돼 주변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SSM 규제 법안 즉각 처리해달라"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촉구 성명서 전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대표 15명은 8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달 2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SSM 규제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의 정치적 논쟁 속에서 소상공인이 염원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형 유통기업들의 SSM 입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심지어 어떤 소상공인은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삼성 휴대전화 북미시장 '잘 터진다'

점유율 사상 첫 30% 돌파 … LG전자는 17.2% 그쳐

북미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8일 시장조사기관 SA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북미시장에서 1610만대의 휴대전화를 출하해 시장 점유율 31.4%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으로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30%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3분기(25.5%)와 비교해 5.9%포인트 상승했다.

또 삼성전자 휴대전화는 북미시장에서 2008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점유율 1위를 달렸다. SA는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AT&T, 버라이즌, 메트로PCS 등과 같은 여러 이통사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모든 주요 부문에 걸쳐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지난 3분기 17.2%의 점유율로 전년 동기대비 3.5%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2위 자리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LH, 광주백운 휴먼시아 공공임대 35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백운 1지구 휴먼시아 5년 공공임대 808가구 가운데 남은 350가구를 오는 16일부터 선착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백운 1지구 5년 공공임대는 지난달 5일부터 4일간 접수한 결과 88%의 신청률을 보였으며 이번에 분양하는 평형은 미달한 84B형과 84C형 350가구다.

접수 첫날인 16일에는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접수한 다음 순번 추첨을 거쳐 오후 4시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부터는 백운1지구 현장 내 본보기주택에서 남은 가구에 대해 선착순 계약 체결한다. /연합뉴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40%↓

전국 18만가구 불과 … 지방 대폭 감소 전세불안 우려

내년에 입주할 전국의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4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에선 증가하지만 경기, 부산, 대구 등 대부분 지방의 입주물량이 대폭 감소해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2012년에는 입주물량이 더 줄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은 총 18만872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입주 예정 물량(30만401가구)에 비해서는 37%,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입주 물량(31만3949가구)보다는 40% 정도 적은 것이다. 수도권에선 10만8343구로 올해(17만1153가구)보다 37% 줄어든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내년 입주물량은 8만384가구로, 올해(12만9248가구)보다 38% 적다.

내년도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와 2008년 하반기부터 몰아친 글로벌 경제위기로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분양 물량을 많이 줄인 탓이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2007년에 분양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낸 뒤 2008년 들어서는 신규 공급을 미루거나 중단한 것이다.

/연합뉴스

中企 투자유치 日·中서 로드쇼

지식경제부는 일본과 중국에서 코트라, 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로드쇼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지경부는 9~10일 일본 도쿄에서 지역전략사업으로 육성 중인 60여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로드쇼를 열어 일본 측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1~12일 중국 상하이에서도 180여 현지 업체를 상대로 로드쇼를 한다.

테크노파크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육성하는 거점단지로 현재 18곳이 지정돼 129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본, 중국 기업들과 기술, 마케팅 분야의 협력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42.41 (+3.45)
▼ 코스닥지수	528.47 (-0.19)
▼ 금리 (국고채 3년)	3.53% (-0.05)
▲ 원·달러 환율	1,113.50원 (+6.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3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0타경 21892	1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165-2 금광아파트 102동 1층 110호 49.86㎡	아파트	35,000,000 35,000,000	임차인있음
2010타경 22192	1	북구 연제동 1009 연제2차대주피오레 202동 2층 202호 84.8728㎡	아파트	160,000,000 160,000,000	
2010타경 22482	1	남구 주월동 420-4 삼다에코빌아파트 1동 4층 502호 81.4048㎡	아파트	145,000,000 145,000,000	임차인있음
2010타경 24655	1	나주시 송월동 660 송월주공아파트 111동 3층 301호 49.96㎡	아파트	41,000,000 41,000,000	
2010타경 25290	1	서구 금호동 818 풍암부영1차아파트[마재마을] 102동 10층 1003호 80.1864㎡	아파트	120,000,000 120,000,000	임차인있음.2010타경29605[중복]
2010타경 25986	1	동구 용산동 636-138 3층 304호 59.49㎡	아파트	50,000,000 50,000,000	최선순위근저당설정보다전입일자빠른임차인있음
2010타경 26163	1	광산구 신가동 879-1 한일아파트 1동 4층 508호 39.39㎡	아파트	29,000,000 29,000,000	대항력있는임차인있음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0타경 15743	1	서구 쌍촌동 1087 304㎡	대	155,993,250 155,993,25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1087 1호36.63㎡제시외세탁실등42.1㎡	단독주택		
		동소 1087 2호 41.25㎡	단독주택		
2010타경 23713	1	동구 소태동 287-2 121㎡	대	90,702,860 90,702,86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임차인있음
		동소 287-2 1층 56.80㎡ 2층 47.53㎡ 제시외 다용도실 등 28.4㎡	다가구		
2010타경 24846	1	광산구 신가동 846-9 119.9㎡	대	69,825,400 69,825,400	일괄매각
		동소 846-9 1층 38.55㎡ 1층 34.8㎡ 부속건물 5.18㎡[화장실]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0타경 13310	1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130-3 304㎡	답	12,403,200 12,403,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0타경 16869	1	남구 월산동 238-27 77㎡ [매각대상아닌타인소유주택일부소재.일부도로로사용중임]	대	2,792,000 2,792,000	공유자김행수지분298분의27전부
	2	동소 238-64 64㎡ [매각대상아닌타인소유주택일부소재.일부는도로로사용중임]	대	1,450,000 1,450,000	공유자김행수지분298분의27전부
	3	동소 238-67 22㎡ [지목이대이나현황도로임]	대	292,530 292,530	공유자김행수지분298분의27전부
	4	동소 238-69 3㎡ [매각대상아닌타인소유소나무소재하며일부는도로로사용중임]	대	39,690 39,690	공유자김행수지분298분의27전부
2010타경 19226	1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066 1078㎡	전	9,163,000 9,16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1087 1015㎡	답	8,627,500 8,627,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1088 367㎡	답	3,119,500 3,119,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 1103-1 155㎡	대	1,705,000 1,705,000	
	5	동소 1103-2 436㎡	답	3,924,000 3,92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0타경 19523	1	북구 용전동 1163 549㎡ [매각대상아닌제시외건물있음]	대	164,700,000 164,700,000	임차인있음
2010타경 20882	1	남구 석정동 산48-1 13190㎡ [공유자우선매수권은1회에한하여허용].분묘소재]	임야	28,028,750 28,028,750	공유자장승원지분4분의1전부
	2	동소 산48-3 298㎡ [공유자우선매수권은1회에한하여허용.분묘소재]	임야	819,500 819,500	공유자장승원지분4분의1전부
2010타경 21380	1	광산구동산동 1150-1 4178㎡	전	183,832,000 183,83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0타경 23270	1	광산구쌍암동 694-14 656.5㎡	대	800,930,000 800,930,000	현황:나대지
2010타경 24655	2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 465 175㎡	전	3,150,000 3,1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758 1884㎡	답	22,608,000 22,60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0타경 25153	1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457 502㎡	대	5,020,000 5,020,000	매각제외되는비닐하우스있음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0타경 13488	1	남구 주월동 1286-1 622.3㎡	대	3,653,113,080 3,653,113,0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1286-8 93.2㎡	대		
		동소 1286-1 지하1층396.38㎡[이용원] 1층428.57㎡[의원] 2층495.78㎡[사무소] 3층445.73㎡[미용원] 4층445.73㎡[당구장] 5층445.73㎡[체육도장]6층445.73㎡[기원] 7층391.77㎡[기원] 제시외주차장관리실10.4㎡	근린시설		
2010타경 21892	2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165-2 금광아파트 상가동 2층 203호 39.44㎡	근린시설	25,000,000 25,000,000	대항력있는임차인있음.상가동이나현원룸으로사용중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0. 11. 23.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0. 11. 30.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0. 11. 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필